

금속산업 노·사 2026년 산별 중앙교섭 시작

14일 중앙교섭 상견례...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 대정부 요구안 등 제안



금속노조가 2026년 중앙교섭을 시작하며 임금·단체협약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는 4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6년 1차 중앙교섭을 상견례로 열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14기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드린다”는 인사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근형 회장은 “작년 사용자협의회 내에서 여러 우려 곡절이 있었으나 다행히 잘 정리되어 올해도 68개 사업장으로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올해 금속노조의 요구가 많아 보이지는 않으나 묵직한 사안들이고, 완성차 대공장들에서 같이 고민하거나 오히려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

업장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부담도 되지만, 매년 해왔듯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올해 교섭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노동조합이라고 운을 뗀 뒤 “초기업교섭도 사회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올해로 중앙교섭이 24년째이고, 중앙교섭은 금속 노·사간의 유일한 초기업 교섭틀”이라며, “현재 중앙교섭에서 맺은 금속산별협약의 적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교섭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보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중앙교섭 합의효력을 산업과 업종,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중앙교섭 참여 노사에 정부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 참여권을 줄 것 등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함께 건의하자고 발언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교섭에서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을 노사가 공동으로 하자며, 초기업교섭이야말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유력한 근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사는 교섭원칙을 확인하고, 예년처럼 매주 화요일 중앙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중앙교섭은 사용자 협의회 주관으로 4월 21일 노조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앙교섭속보 01호]

2026 세계노동절부산대회

조합원의 재치가 투쟁을 만든다!

4행시 공모전

당선작은 노동절대회 무대에서 발표! 소정의 상품까지!

4개의 시제 중에 하나를 골라 4행시를 써주세요!

- 민주노총
- 원청교섭
- 지방선거
- 내란청산

접수 링크
<https://bit.ly/2026세계노동절부산대회4행시공모전>

시상 <선착순 30명에게 커피쿠폰 제공>
 1등: 1명 5만원 상품권 / 2등: 2명 3만원 상품권

기간 4월 1일 (수) ~ 4월 24일 (금)

노동절 4행시! 우리 함께 써봅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돌파! 노동기본권쟁취! 사회대개혁실현!

모든노동자 노동조합 사회대개혁실현!

2026 세계노동절 부산대회

2026.05.01.14시 서면전포대로

5월 1일 가재! 전포대로로!

민주노총

노동절

노동절 삼행시 공모

이 여러분!

대기나칠 수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제니어 노동절

- 접수기간 - 2026. 3. 23. ~ 4. 23.
- 접수방법 - QR코드/첨부링크 접속
- 결과발표 - 2026. 4. 27.
- 20명 선정 - 민주노총 굿즈세트 증정 영상으로 제작

—삼행시 공모전 참여하기!

집단교섭 요구안, 가볍지만 무겁다!

16일 지부 대회의실서, 지부 집단교섭 2025년 협약 조인식 가져
 조인식 후 2026년 지부 집단교섭 노사 상견례 진행
 교섭 진행 원칙 합의... 2026년도 사업장 돌며 현장에서 교섭 진행



▲ 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집단교섭 1차 본교섭(상견례)이 진행되고 있다.

2026년 지부 집단교섭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16일 오후 3시경 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지부 집단교섭 1차 교섭이 열렸다. 이날 교섭 시작 전 간부 파견 처우를 쟁취했던 2025년 지부 집단교섭 조인식이 있었다.

1차 본교섭은 교섭위원 전체 상호 인사 후 노사 교섭대표 인사말이 이어졌다. 회사는 “국제경제 상황이 안개속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조건에서 양극화도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요구안도 가볍지 않은 것 같다. 올해도 교섭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회사인사말에 더해 지부장은 “올해 요구안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 가볍지만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도 교섭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인사말에 이어서 중앙교섭 상견례 결과를 공유하고, 교섭 진행 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교섭 진행 원칙 논의과정에서는 참여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 관련, 추후 집단교섭에 하이록코리아가 추가될 예정이다. 에버런스 관련은 사업

장 지회장과 협의 후 안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질의가 진행된 후 진행 교섭 원칙이 합의됐다. 2026년 교섭은 2025년과 똑같이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차기 교섭은 4월 23일 지부 4층에서 진행되며, 차기 교섭에서는 지부 집단 교섭 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2026년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은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 지자체

요구 ▲기본급 149,600원 임금 인상 ▲지부 협약 개정 요구(선거관리위원회와 지부 감사위원 활동 시간 확대) ▲중앙교섭 참여 요구 등이다.

한편, 2026년 지부 집단교섭 시작 전 난항이 있었다. 지부 집단교섭 회의록 내용 중 간부 파견 범위 관련 입장 차로 조인식이 지연되기도 했다.

부산양신금속노동자5



▲ 지난 15일 전국동시다발 원청교섭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가 열렸다. 부산에서도 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 후 부산시청의 원청교섭을 촉구하며 행진했다. 원청교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조직적 투쟁을 조직 확대 투쟁으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쟁취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